

退溪의 使行詩**

李 章 佑*

• 目 次 •

I. 머리말	IV. 忠淸道에 나가서
II. 義州에 나가서	V. 江原道에 나가서
III. 京畿道에 나가서	VI. 맺는 말

I. 머리말

필자는 1981년에 대만 淡江大學 中文科의 王甦교수가 지은 《退溪詩學》¹⁾을 한국어로 옮겨 낸 것이 계기가 되어 퇴계의 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의 시가 2,000여 수²⁾ 가깝게 지금까지 남아 있지만, 시의 내용에 典故가 많아서 읽기가 쉽지 않으므로, 감히 어떻게 접근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퇴계문학에 관하여 이미 알려진 주석서인 《退溪文集攷證》 이외에도, 《要存錄》이라는 필사본으로 된 주석서 한 권을 또다시 얻어 볼 기회를 얻어³⁾ 《退溪學報》 第五十一輯부터 「退溪詩譯解」란 제목으로, 퇴계시에 대한 역주를 연재하기 시작하였다. 근간된 이 학보는 57집까지 45題의 시 68首를 연재하였는데 《內

* 영남대 증문학과 교수

** 안동대 퇴계학 연구소, 『퇴계학연구』 제2호(1988) 게재논문

1) 서울, 退溪學研究院, 1981.

2) 위의 책, 180쪽에 보면 2,013수가 남아 있는 것으로 통계되어 있음.

3) 자세한 것은 拙考 <退溪文集 註釋小考>, 《退溪學報》 第48輯을 보라.

集》卷一에 詩作연대순으로 배열된 시 중에서 40代 중반의 ‘湖堂讀書期’의 詩를 역주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서 다루어 보려는 시들은 퇴계가 41~42세에 義州에 외교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출장을 나갔을 때와, 경기·충청·강원 3도에 어사로서 나갔을 때에 지은 시들이다.

퇴계는 일생 동안 서울을 자주 내왕하였고, 또 자신이 산수를 즐겼기 때문에 많은 기행시 또는 遊記 같은 글을 남기고 있다. 여기서 다루려는 시들도 성격으로 따지면 모두 다 기행시에 속하겠지만, 이 시를 지을 때 퇴계로서는 일생을 통하여 가장 폭넓은 여행을 하였고, 또 그의 많은 시들 중에서, 이 시들은 비교적 초기에 지어진 시들에 속하고 있으므로, 한꺼번에 묶어서 다루어 보려고 한다.

II. 義州에 나가서

연보에 의거하면,⁴⁾ 퇴계는 41세가 되어 司憲府持平, 弘文館修撰 등의 벼슬을 받고 또 承文院校理를 겸임하면서, 經筵에 나아가서 進講하기도 하고, 또 東湖讀書堂에 뽑혀서 賜暇讀書를 하기도 하는데, 말하자면 소장정에 문관으로 누릴 수 있는 영예는 다 누리고 있던 시절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 이 해 4월말이나 5월초 경에 그는 ‘咨文點馬’라는 임시직책을 띄고서 의주로 나갔다가 副校理로 체임되어 還朝하라는 명령을 받고 돌아오는 중에, 團練使가 歸還길에 중국 물건을 사가지고 오는 것을 조사하라고 하여 의주로 되돌아 갔다가 6月 10日이 지나서 서울로 되돌아 오게 된다. 퇴계의 《言行錄》에 의거하면, 이 때에 그는 한달 가까이 의주에 출장와서 있었다고 한다.⁵⁾

4) 주로 權五鳳교수의 <退溪家年表編述>(《退溪學報》 第50輯부터 연재)을 참고한다.

‘咨文’이란 중국과의 외교관계 문서이며, ‘點馬’란 외교사절들이 사용하는 馬匹을 점검하는 일이다. 위에 언급한 承文院이라는 곳이 바로 외교 문서를 관장하는 관청이니, 이 때에 아마 承文院校理를 겸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맡게 되지 않았을까 싶다. 의주에 이르러 지은 시 12수를 <義州雜題十二絶>(의주에서 여러 가지를 읊음—絶句詩 12수)로 묶어 놓았는데, 그 마지막 수에 <閱馬>(중국에 보낼 말을 점검하다)라는 시가 있다.

좋은 말 가려보고 뽑아서 황제의 마구에 들여 보내려고,
강가에 나란히 내어다 세우니 비단에 놓인 구름무늬같이 아롱지네.
우리 임금님 외교문서 완성하여 중국사신에게 전하여 주니,
변방 달도 다정하여 내가 돌아갈 길을 비추어 주네.
揀閱龍孫入帝閑, 江頭齊出錦雲斑.
玉書寫就傳朝使, 邊月多情照我還.

이 시를 읽어보면 바로 그가 맡았던 ‘咨文點馬’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벼슬인지 알 수가 있다.

이 <義州雜題十二絶>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鴨綠天塹>(압록강의 천연 요새지에서)
2. <州城地利>(의주성의 지리상의 잇점)
3. <山川形勝>(산천의 뛰어난 형세들)
4. <義順館>(압록강 가에서 중국사신을 영접하던 곳)
5. <威化島>(이성계가 회군한 곳)
6. <三島禁耕>(於赤島·黔同島·威化島 세 섬의 경작을 금함)
7. <聚勝亭>
8. <統軍亭>
9. <禁銀>(사신의 수행원이 사적으로 은을 소지하고 들어가는 것을 금지함)
10. <斷渡>(압록강의 도강을 금지시키다)

5) 卷三, <行實> 第二.

11. <清 心 堂>(義州의 客館 북쪽에 있음)
12. <關 馬>

이 중에서 <鴨綠天塹>, <州城地利>, <山川形勝>, <聚勝亭>, <統軍亭> 등은 국경지대의 특수한 경관과 어우러진 분위기 등을 읊은 것이고, <義順館>, <威化島>, <三島禁耕>, <禁銀>, <斷渡> 등은 이 국경지대의 제도와 역사 따위를 읊은 것이다.

해 저무는 국경지대의 성벽에 올라 홀로 난간에 기대고 섰는데,
 외마디 강적(羌笛) 소리 수루에서 들려오네.
 그대에게 부탁하여 알고자 하노니 중국과의 경계가 어디쯤인지,
 웃으면서 가리키네, 긴 강의 서쪽에 있는 산들을.
 日暮邊城獨倚闌, 一聲羌笛戍樓間.
 憑君欲識中原界, 笑指長江西岸山. —<鴨綠天塹>

이 시를 읽어보면, 뒤에 이순신이 지은 시조

한산섬 달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일장검 빼어들고 깊은 시름하는 적에,
 어디서 일성 호가는 나의 애를 끊나니.

에서는 “胡歌”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羌笛”이 나온다. “胡歌”나 “羌笛”이 나 다 중국 서북방에 살던 漢族이 아닌 異民族들이 부르던 노래와 악기 들인데, 국경 지대에 파견되어 오랫동안 근무하던 한족의 병사들이 그러한 이민족의 노래를 배워 황량한 전쟁터에서 고적하게 늙어 가는 자신들의 신세를 타령하고 쓸쓸한 마음을 달래었다.

이 시의 첫째 구절에 나오는 “해 저무는 국경 지대의 성곽”(日暮邊城), “홀로 난간에 기대다”(獨倚闌)란 말은 다 쓸쓸하고 한적하며, 또 고향이나 도읍에서 멀리 떠나온 기분을 십분 잘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 구절에서 갑자기 “외마디의 강적소리”(一聲羌笛)가 등장하여, 이 국

경 지대에서 기대하지 않았는데 돌연 접하게 되는 이색적인 분위기를 놀랍게 느낄 수 있다. 또 앞 구절에서는 사뭇 조용한 것뿐이었는데, 이 뒷 구절에서는 역시 애처롭기는 하지만 적막함을 깨는 “노래소리”가 등장함으로써, 자못 정적인 분위기에서 동적인 분위기로 기분이 바뀌게 된다. 여기서 ‘외마디’ 또는 ‘한 마디’로 번역해야 할 “一聲”이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이 “강적”소리 외에는 딴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말도 되니까, 뒤집어 보면 오히려 이 변방지대의 고요함을 더욱 강조하기도 한다.

그런데, 앞의 두 구절만 놓고 볼 때에는 이 “一聲羌笛戍樓間”의 ‘戍樓’가 우리나라의 수루인지, 저쪽 나라의 수루인지 잘 알 수가 없다. “羌笛”이 이민족들의 악기이니까, 만주족이 사는 저쪽 편에서 부는 애처로운 이별의 원한을 담은 노래소리가 이쪽까지 들려 온다고 볼 수도 있다.⁶⁾ 그러나 셋째 구절 “그대에게 부탁하여”(憑君)라는 말이 나오고 첫 구절에 “홀로”(獨)라는 말이 나오니까, 여기서 “그대”(君)는 아마 우리편 성곽 위에 있는 수루에서 외롭게 강적을 불고 있던 병사로 생각된다. 그 병사는 이곳에서 자나깨나 압록강 너머로 저 황량한 외국쪽 산천만 바라보고서 지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것이다.

셋째 구절의 “欲識”(욕식)이라는 入聲字로 된 疊韻語는 첫째 구절에 나오는 “倚闌”이라는 말에 비하면, 똑같이 행동 동작을 표시하는 말이지만, 어감상으로도 또 의미상으로도 한결 더 능동적이고 강하게 느껴진다. 아마 압록강이 서해와 합류하는 지점에, 강의 폭이 한없이 넓어지면서, 그 중간에 많은 섬들이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의주쪽에서 볼 때에는 어느 지점까지가 우리쪽 땅이고, 어느 지점까지가 저쪽편 땅인지 막연하게 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시의 작자(퇴계)에게는 그것을 분명

6) 당나라 王之渙(A.D. 695~?)의 <양주의 노래(涼州詞)>에 “황하는 흰구름 사이로 올라가고, 한 조각 외로운 성채 만길 높은 산 속에 묻혀 있네. 강적은 하필 이별의 노래를 원망스럽게만 불어야 하는가? 봄빛은 본래 옥문관을 넘지도 못하는 것을.”(黃河遠上白雲間，一片孤城萬仞山。羌笛何須怨楊柳？春光不到玉門關)이라는 것이 있다.

히 알고 싶은 충동이 매우 강하게 일어나서 ‘내가 똑똑하게 한 번 알아보고 싶다’는 뜻으로 “欲識”이라고 썼을 것이다. 무엇을 알고 싶어 묻는 경우에 한시에서 흔히 많이 등장하는 구절은 ‘問君……’(그대에게 묻노니)이라는 표현인데, 이러한 표현보다는 이 말이 훨씬 강렬한 느낌을 주며, 첫 구절의 ‘난간에 기대다’, ‘난간에 의지하다’라는 뜻의 “倚闌”이라는 동작과는 확연한 대조가 된다.

마지막 구절 “웃으며 가리키네……”(笑指)를 보면, 이 수루 위에서 날은 저물어 가는데, 이별의 서글픔만을 반추하는 강적이나 불고 있던 한 외로운 병사가 뜻밖에 뵈게 되는 이 신분이 고귀한, 또 외교적인 사명을 띠고 서울에서부터 특별하게 나온 작자에게, 매우 반갑고 또 공손하게 손을 높이 쳐들고 열심히 강 건너 저쪽편 산들을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는 것이 독자의 눈앞에 와 닿는 듯하다.

이 <義州雜題十二絕> 중에서 위의 시가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한 번 좀 상세하게 풀어 보았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신들이 의주를 통하여 중국에 드나들고, 또 중국에서 오는 사신들을 의주에 나가서 맞이한 일이 한 해에도 몇 번씩 있었으며, 《朝天錄》·《燕行錄》과 같이 중국에 다녀온 기록이나, 거기 다녀온 사람들의 문집에서 이 의주 일대의 풍경을 묘사한 시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들이 쓴 시와 이퇴계가 쓴 이 시들을 비교하여 보면 이퇴계의 시의 한 특색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열 두 수의 시 중에는 다음과 같이 자기의 나그네 신세를 적은 것도 있다.

빈 헌함 성긴 기둥 이 마루를 사랑하여,
 병든 나그네 편히 누워 여행에 고달픈 몸을 풀었네.
 어찌 감당하겠는가? 이 고을 원님 사람을 취하게 만들을,
 난감하구나, 단장한 기생들이 손님 마음 녹이려고 웃음을 자아냄이.
 虛檻疎櫺愛此堂, 病夫安臥洗塵忙.
 那堪主帥挑人醉, 不分紅粧笑客涼 —<清心堂>

제목인 <淸心堂>은 의주에 공무로 출장오는 사람들이 묵는 客館의 북쪽에 있던 집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 別館쯤으로 생각된다. 퇴계의 <言行錄>에 의하면 “이때 퇴계는 한 달 가량 의주에 출장와서 있었으나 일체 女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 시를 평하는 데는 그러한 일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옛날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가 보통 지방수령들에게 받을 수 있는 ‘붉게 단장한 아름다운 여자’(紅粧)들이 웃음을 자아내고, 술을 자주 권하는 향연의 분위기를 그대로 잘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의주로 가는 길에 평양에 들러 평안감사인 尙震에게서 練光亭에서 밤에 향응을 받은 것을 적은 다음과 같은 시도 있다.

멀리 아득한 성머리에 날 듯 펼쳐진 기와 지붕들 가지런한데,
올라와서 보니 유독 깨닫겠네, 먼 산들이 한결 낮아보임을.
초저녁 조각구름과 저가는 햇별은 처음 연회자리 펴는 것을 환영하고,
옥적소리와 구슬 장식한 금소리는 새벽 닭 운 뒤까지 이어졌네.
현함 바깥에 흐르는 긴 강물은 마치 흰 깃실이 가로지른 듯하고,
하늘 가운데 떠 있는 달은 가까웁기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될 듯.
명나라 사신 당고(唐臯)공이 이 경치의 뜻을 정말 먼저 터득하여,
합당하게 정자 이름을 ‘練光’ 두 자로 지었네.

縹緲城頭翼瓦齊, 登臨唯覺遠山低.
殘雲返照迎初席, 玉笛瑤琴送早鷄.
檻外長江橫似練, 空中明月近堪梯.
唐公此意眞先得, 恰把亭名二字題。 —<平壤練光亭陪監司尙公夜讌>

<要存錄>에서 퇴계의 후손인 李野淳(1755~1791)은 퇴계가 이 시에서 이 유명한 ‘練光亭’이란 정자의 이름을 중국의 사신인 唐臯가 처음 지은 것 같이 썼던 것은 당고가 쓴 <練光亭記>7)의 내용으로 보아, 당고가 이 기문을 짓기 이전부터 이런 이름이 붙어 있었던 것을 자세히

7)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 제51에 번역되어 있음.

모르고 썼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史實의 착오와는 관계없이, 이 ‘練光亭’의 밤 경치를 묘사한 시로서의 이 시는 훌륭하다. 원래 ‘練光’이라는 말은 ‘흰 김 빛’이라는 뜻인데, 대동강 물이 밤에 보니 꼭 흰 김(누에고치 실)이 가로질러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뜻에서 그렇게 썼을 것이다.

“헌함 바깥에 흐르는 긴 강물은 마치 흰 김실이 가로지른 듯하고, 하늘 가운데 떠 있는 달은 가까웁기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될 듯”한 표현은 정말 달밤에 허영게 보이는 긴 강물 줄기를 잘 나타내고 있다.

Ⅲ. 京畿道에 나가서

퇴계는 의주에 나가서 한달 가까이 있다가 6월달에야 서울로 돌아왔다가 이 해 9월에 다시 경기지방의 災傷을 살피는 암행어사가 되어 永平縣(지금의 포천군 일부)의 수해 상황을 살피고, 朔寧(연천군 일부) 등 경기도 동북부 지방을 둘러보고 오게 된다. 《內集》에는 <9월 7일 낮에 임진정에서 쉬면서>(九月七日午, 憩臨津亭)이라는 시 한 수가 있고, 《別集》에는 <삭녕에 이르러>(到朔寧)라는 시 한 수가 또 전한다.

먼저 <삭녕에 이르러>라는 시를 보자.

슬프고 슬프도다, 흉년에 마음이 편안치 못하여,
강가에 말을 세우고 쉬는데, 그림자조차 외롭고 고달프게 보이네.
나뭇잎은 밤에 서리를 맞고는 아주 붉은 빛 진하게 되었으나,
산 속에 가을하늘 들어오나 파란 빛 반쪽밖에 안보이네.
관사(官舍)에 조차 구름에 숨겨져 있으니 마치 절간에 들어온 듯한데,
관리들 땅을 밟는 모습 꼭 병풍을 옮기듯이 무겁게 보이네.
종이를 찾아내어 시구를 만들려 하나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새로 뜬 달빛만이 정원에 가득한 것을 아까워 부질없이 읊조려보네.

惻惻荒年意未寧, 江邊立馬影■踰.

葉從霜夜濃全赤, 山入秋空割半青.
 官舍隱雲如到寺, 吏人踏地似行屏.
 索賤題句知何用, 新月閒吟愛滿庭.

이 해(辛丑年)에는 전국적으로 흉년이 들고, 특히 영평현에는 수해가 극심하였다고 한다. 《李朝實錄》을 보면 같은 해 같은 달 25일에 퇴계가 經筵 夕講에 侍讀官으로 나가서 흉년에 대한 대책을 건의한 내용이 보이기도 한다. 그 내용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영평지방의 전답이 많이 떠내려가고 덮였으므로 講武場을 몇 년 동안만 田地로 대용하자는 것이고, 두번째는 이재민 자녀들의 혼사에 관한 문제로 비록 禮를 다 갖출 수는 없다 하더라도 약식으로나마 하게 하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위의 시에서는 흉년이 들어 추수라고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만 계절만은 어김없이 서리내리고 단풍이 질어지며, 하늘은 더욱 맑아지고, 달은 더욱 밝아지는—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마음만 더욱 슬프게 만드는데— 정경을 적어 내고 있다. 셋째 구절 “산 속에 가을 하늘 들어왔으나 파란 빛 반쪽으로 쪼개어졌네”라는 표현은 펍 특이하게 보인다. 너무나 험준한 산골짜기에 들어 앉아 있는 곳이라 넓은 하늘조차도 절반밖에는 보지 못한다는 말을 이렇게 “칼로 끊었다”(割)는 말로 날카롭게 표현하였다. 천혜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이곳의 각박한 사정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듯하기도 하다.

<9월 7일 낮에 임진정에서 쉬면서>라는 시는 다음과 같다.

임진강 나루 곁에 가을 하늘 질푸른데,
 맑은 강에 해 비스듬하게 드니 석벽이 흰하게 비치네.
 들물 밀물 드나들기를 옛날부터 지금까지 몇 차례나 되풀이하였는가?
 큰 바다 서쪽으로 이어졌으나 몇 봉우리나 막아서 있네.

단풍 든 숲 서리맞은 나뭇잎은 성성의 피와 같이 무르녹았고,
 모래 강둑에 핀 갈대꽃은 눈 흰 것과 분간하기 어렵네.

뱃사공은 다만 아네, 급히 건너 가는 것을 다툼 줄만,
 해오라기 하염없이 높이 날아오르는 것만 일삼네.
 곡산은 저녁 구름 속에 남몰래 가려져 있으니,
 난간에 의지한 나그네 갑자기 마음이 울컥하여지네.

臨津渡上秋空碧, 斜日清江映石壁.
 潮來潮去幾今古, 大海西連數峯隔.

.....

楓林霜葉爛猩紅, 沙岸蘆花袞雪白.
 舟人只知爭渡急, 鷗鷺無情事高格.
 鵝山隱翳暮雲頭, 馮關客子偏傷激.

이 시에서는 碧(벽), 壁(벽), 隔(격), 白(백), 格(격), 激(격) 등 入聲(十一‘陌’)운을 사용하였는데, 碧空, 石壁, 峯隔(봉우리가 막아서 있음), 白雪, 高格(높이 날아오름), 激傷(마음이 울컥하여지다) 등과 같은 詞組로 연결하여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격정에 찬 가을 기분을 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意象과 音象이 부합하게 脚韻字를 사용하였다.

‘臨津亭’은 임진강을 건너다니는 나루터 ‘臨津渡’의 남쪽 편에 서 있는데, 長湍府로부터는 남쪽으로 37리의 지점이 되고, 이 정자 자체는 坡州에 속한다고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적혀 있다.⁸⁾ 지금 판문점으로 가는 길목에 세워진 臨津閣 부근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없다. 이 일대는 고려의 수도인 개성과 가까워 고려의 성쇠와 관련된 유적들이 많다. 지금도 퇴계가 이 시에서 노래한 石壁은 임진강 양쪽에 그대로 남아 있다. 여기서 우리들이 오늘날 다시 선다면 그의 “들물 밀물 드나들기를 옛날부터 지금까지 몇 차례나 되풀이하였는가? 큰 바다 서쪽으로 이어졌으나 몇 봉우리나 막아서 있네.”(潮來潮去幾今古, 大海西連數峯隔)라고 한 감회를 새삼스럽게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위 시에서 인용을 생략한 부분은 고려의 성쇠를 읊은 8구절인데, 文臣들이 임금과 어울려 吟風詠月하다가 武臣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사실을 노래하고 있

8) <京畿道·長湍>條. 필자의 이 시 해제(《退溪學報》 第五十二輯, 56쪽)를 보라.

는데, 관련된 故事들을 설명하자니 번거로워 생략하여 버렸다.

“단풍 든 숲 서리맞은 나뭇잎은 성성(猩猩)이의 피와 같이 무르녹았고, 모래 강둑에 핀 갈대꽃은 눈 흰 것과 분간하기 어렵네.”(楓林霜葉爛猩猩紅, 沙岸蘆花袞雪白)는 단풍이 붉은 것과, 갈대가 흰 것을 매우 진하게 비교하고 있다. 성성은 동남아시아의 여러 섬에서 살고 있는 원숭이의 일종인데, 털이 길고 붉은 것이 특색이라고 한다. 이 놈은 술을 좋아하고, 취하면 붉은 피를 토하는데, 이것을 염료로 사용하여 붉은 담요를 만든다고도 한다. 이 담요를 猩猩氈이라고 한다고 한다. 여기서 서리맞은 단풍잎을 ‘猩猩紅’⁹⁾에 비유한 것은, 단풍잎 붉은 것이 마치 성성이가 진한 피를 토한 것같이 애통함을 느끼게 한다. 마지막 연에 나오는 “鶴山”은 개성에 있는 松嶽山을 말한다. “곡산은 저녁 구름 속에 남몰래 가려져 있으니, 난간에 의지한 나그네 갑자기 마음이 울컥하여지네.”(鶴山隱翳暮雲頭, 馮關客子偏傷激) 이 시는 臨津亭의 경치를 보고서 懷古에 잠기는, 말하자면 ‘景’을 보고서 ‘情’을 일으키는, ‘情’과 ‘景’이 잘 조화된 시라고 말할 수 있다.

경기도에 어사로 나간 것은 일정이나 노정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집에서는 이 2수의 시밖에는 찾을 수 없다.

IV. 忠淸道에 나가서

위의 시들을 지은 다음해인 壬寅年 3月 퇴계 42세 때에 議政府檢詳이라는 벼슬에 오르고 충청도 각군의 救荒摘奸御史가 되어 泰安·淸風·鎭川·公州·天安 등지를 다니면서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9) 우리말에 ‘猩猩紅’이라는 전문명이 있다. 어린아이들이 가을부터 겨울 사이에 갑자기 고열을 내고 구토를 일으키며, 얼굴이 짙은 다홍색을 띠운다.—이희승 《국어대사전》 1622쪽.

<泰安曉行憶景明兄>(태안에서 새벽에 말을 달려가면서 경명형님을 생각하노라)

<宿淸風寒碧樓>(청풍의 한벽루에서 자며)

<鎭川東軒>(진천의 동헌에서)

이상 《內集》 卷一

<全義縣南行, 山谷人居, 遇飢民>(전의현의 남쪽으로 가다가 산골 사람들의 집에서 목다가 굶은 사람을 만나다)

<夜入公州>(밤에 공주에 들어와서)

<早渡錦江. 次船亭韻, 擬寄任武伯>(일찍 금강을 건너며—나루터에 있는 정자에 걸린 시의 운자를 사용하여 任虎臣에게 부치려는 뜻에 비겨서)

<四月初一日天安東軒>(4월 초하루 천안의 동헌에서)

이상《別集》 卷一

이때의 路程이 어떠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다. 다만 《實錄》과 《退溪年譜》 및 시 제목이나 원주에 나타난 날짜 같은 것을 살펴본다면, 3월 19일에 서울을 떠나서¹⁰⁾ 같은 달 24일 밤에 公州에 들어가고,¹¹⁾ 4월 1일에 天安을 경유하여 上京 復命하였는데. 임금에게 3년 동안 비상식량을 준비할 것과, 公州判官 印貴孫을 파면할 것을 건의하였는데, 貴孫의 파면은 허락되었다고 한다. 이때 위의 시제 중에 등장하는 任虎臣은 어사보다는 직급이 높은 敬差官으로 충청도에 나와서 각지역을 조사하고 다녔다.¹²⁾ 이때에 그 형님인 溫溪(灌)도 경상도에 賑恤敬差官으로 정월부터 나가서 있었는데, 퇴계는 충청도 해안

10) 《李朝實錄》 中宗三十七年壬寅·三月己亥日條, 562쪽.

11) <夜入公州>의 원주에 의거함. 權五鳳교수가 <退溪家年表編述>에서 이 시를 지은 날짜를 二月로 본 것은 ‘三月’을 잘못 본 것 같다. 또 그는 三月二十五일에 陝川으로 들른 것으로 보았으나, <二十五日陝川向三嘉途中>이라는 시의 원주를 보면(《陶山全書》 別集 卷一, 428쪽) ‘二十三日立春 뒤 3日 만’에 이 시를 쓴다고 하였으니, 입춘이 보통 양력 2월 4일 전후인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해(壬寅年)의 입춘은 이해의 봄이 아니라 겨울인 12월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필자는 퇴계가 이 어사 행차에 陝川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 해 말 경에 별도로 陝川으로 간 것으로 본다.

12) 위의 주 11)과 같은 쪽 이하 참조.

에 있는 泰安(지금의 서산군 일부)을 지나면서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군의 성문 호각을 불어 밤중에 열게 하고,
오직 임금님 명령 받드는 일이라 급하게 역마를 갈아타고 달리네.
덜 깬 꿈결 안장에 묶은 채 몸은 얼얼한데,
떠도는 빛 바다에 연하였고 달빛만 흰하네.
인기척에 놀란 기이한 학은 외딴 섬으로 도망치고,
비오는 틈탄 발갈이꾼들은 먼 마을에 나타나네.
영남과 호서가 서로 바라보기에 천리 길이나 떨어져 있으니,
알지 못하겠네, 어느 곳에서 달려가는 수레를 조심하고 계시는지?

郡城吹角夜開門， 祇爲王途急駟奔。
殘夢續鞍身兀兀， 遊光連海月痕痕。
驚人別鶴投孤嶼， 趁雨耕夫出遠村。
湖嶺相望隔千里， 不知何處戒征鞍。

이 시의 제2·제3 兩聯(頷聯·頸聯)에서는 새벽의 해안을 따라서 말을 타고 가는데 피로에 지쳐 깜박깜박 졸면서도 고향으로 나간 형님을 비몽사몽간에 생각하는 모습과 새벽 무렵의 농촌과 해안 풍경이 펍 잘 그려져 있다. 맨 앞에 나오는 “殘夢”이라는 말을 ‘덜깬 꿈’으로 번역하여 보았는데, 그 꿈의 내용은 바로 형님과 작별하던 일 또 지금쯤 경상도 어디쯤 자기와 같이 분주히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잠깐 고향에 들렀을 형님을 생각하고 있는 내용일 것이다.

특히 여기 나오는 “兀兀”(울울)이라는 말은 전후의 문맥으로 보아 피로하여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며, 정신이 몽롱하여 깜박깜박 졸린다는 뜻이 있지만, 또 다음과 같은 특별한 典故를 지니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소동파가 그의 동생을 이별하는 시 중에,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얼얼하게 취한 듯할까?
이 마음 이미 뒤쫓고 있네, 그대 돌아가는 말이 떠나는 것을.

돌아가는 사람은 그래도 스스로 어버이 계신 집에 가서 모실 것을 생각
 하겠지만,
 지금 나는 어떻게 나의 적막함을 위로할 것인가?

.....

不飲胡爲醉兀兀， 此心已逐歸鞍發。
 歸人猶自念庭闈， 今我何以慰寂寞？

.....

—〈辛丑十一月十九日，既與子由別於鄭州西門之外，馬上賦詩一篇寄之〉

소동파의 이 시에서는, 동파가 그의 아우를 이별한 심정을 “兀兀”로 표현하였는데, 퇴계는 그의 형님을 이별하여 정신이 ‘얼얼’하다고도 말할 수 있다. 동파의 아우 子由는 서울로 돌아가서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실 생각을 하지만, 퇴계의 형님 溫溪는 경상도에 내려간 길에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 뵙게 될 것이다.¹³⁾

서울서 어사의 임명을 받은 날부터 밤낮을 가릴 것 없이, 역마를 바꾸어 타고 며칠을 바쁘게 달렸으니 몸은 지칠대로 지쳐 있는데, 오늘밤도 또 다른 고을의 성문을 비상을 걸어 열게 하고서, 역마를 바꾸어 타고 이 해변 고을을 달리니, 몸이 피로하여 깜박깜박 졸리기도 하고, 또 먼 곳에 있는 형님과 고향을 줄면서 문득 꿈꾸게 되자 마음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적막한 생각까지 나서, 마치 몸이 술 취한 듯이 어질어질하고 얼얼하게 된 상태를 “兀兀”이라고 표현하였다고 본다.

최근 대만에서 나온 《大辭典》을 보면 이 “兀兀”이라는 말을 1) 정지된 모습(靜止的樣子), 2) 혼침한 모습(昏沈的樣子), 3) 피로를 풀지 못한 상태(勤勞不解的樣子)라고 해석하고 있다.¹⁴⁾ 이렇게 보면 이 퇴계시에서 ‘兀兀’이라는 말은 이 사전에서 정의한 2)의 뜻과 3)의 뜻을 동시에 간직하고 있다고 하겠다.¹⁵⁾

13) 王文誥·馮應榴 輯注, 《蘇軾詩集》 上, 95쪽. 臺灣學海出版社, 이 詩句의 典故는 《要存錄》에서 인용하여 필자가 다시 자세히 풀었음.

14) 1985. 三民書局, 337쪽.

15) 이 경우에 ‘多義性’이 성립된다고 말한다. 이 용어에 관하여서는 필자가 번역한

넷째 구절의 “兀兀”의 對로 쓴 “痕痕”이라는 말은 漢文辭典에서는 쉽게 찾아낼 수 없는 용어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兀兀”은 희미하고 몽롱하고 얼얼한 상태를 나타낸 말이니, 그와는 반대로 밝고 흰한 상태를 나타낸다고 밖에는 추측할 수밖에 없으나, 이러한 독특한 말을 퇴계가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여 불과재로 생각한다.

다섯째 구절에서는 “投”자가 띄어 쓰인다. 이 글자의 뜻은 일반적으로는 “손으로 어떤 물건을 집어서 멀리 던진다.”는 뜻이다. ‘投擲’이라는 말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이 시에서는 ‘인기척에 놀란 학’이 ‘외로운 섬’으로, 마치 ‘물건을 집어서 멀리 던진 것’ 같이 힘차게 도망쳐 날아가서 펑하고 내려 앉는 광경이 눈에 떠오른다.

퇴계는 이때 곳곳에서 백성들이 굶주리는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였다. 전의 산중에서 굶주리는 사람들을 보고 다음과 같은 시를 썼다.

집은 험고 옷은 때에 절었으며 얼굴엔 짙은 검버섯 피었는데,
관아의 곡식 잇달아 비니 들에는 푸성귀마저 드무네.
유독 사방의 산에 꽃만 비단같이 곱게 피어 있으니,
봄 귀신님이야 사람들 굶주린 것 어찌 알리오?
屋穿衣垢面深梨, 官粟隨空野菜稀.
獨有四山花似錦, 東君那得識人飢.—〈全義縣南行, 山谷人居, 遇飢民〉

이 행차를 거의 마감하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천안에서 쓴 시는 다음과 같다.

이리저리 떠도는 백성들 많은데 나만 편안함을 얻어,
길에서 굶주린 사람들 만나면 오래도록 머뭇거리네.
피로가 극에 달해 옛 환성(歡城)땅에 몸을 내맡기니,
높은 산 깊은 골짜기 두루두루 다 지나왔다네.
동백꽃 고운 보라빛은 붉은 꽃을 모은 듯하고,

〈中國詩學〉(서울, 同和出版社), 23쪽을 보라.

옥매는 맑은 향기 풍기며 이슬 맺혀 흔들리네.
 빈뜰에 해지고 꽃 시샘하는 바람 불어오니,
 늦은 봄 난간에 기대어 오히려 추위를 걱정하네.
 民多流離我得安, 道逢餓者久盤桓.
 疲極來投古歡城, 歷盡山顛與水干.
 山茶紫艷攢花然, 玉梅素香飄露溥.
 日暮空庭妬花風, 春後憑欄猶怕寒. —〈四月初一日, 天安東軒〉

“歡城”은 천안의 옛 지명이다. 여기서도 또 “投”자가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피로한 몸을 내어던지듯이, 기진맥진하여 旅舍(東軒) 방에다 몸을 던져 버린다는 기분을 잘 나타내었다. 또 비록 지명의 옛이름이기는 하지만 ‘歡城’(환영하는 고을)이라고 써서 피로한 나그네를 환영한다는 뜻을 담고 있으니 재미있게 느껴진다.

V. 江原道에 나가서

위와 같은 해 가을 8월 하순과 9월 초순에 퇴계는 다시 江原道の 災傷御史가 되어 平昌·春川·原州 등지를 둘러보고 돌아온다. 이때 지은 시들은 다음과 같다.

<原州憑虛樓有懷州教金質夫, 次樓韻留贈>(원주의 빙허루에서 원주교관 金士文을 생각하며, 빙허루 현판에 적혀 있는 시의 각운자에 맞추어 시를 지어 그에게 남겨 보냄)

<酒泉縣酒泉石姜晉山韻>(원주 주천현의 주천석—姜希孟이 지은 시의 각운자를 그대로 사용하여)

<錦江亭>(금강정에서)

<洪川三馬峴用景明兄竹嶺途中韻>(홍천의 삼마고개에서—경명 형님께 서 즉령 도중에 지은 시의 각운자를 그대로 사용하여)

<過淸平山有感>(춘천의 청평산을 지나다가 고려시대의 淸平居士 李資玄의 유적지를 방문하여)

—이상 《內集》 卷一

<平昌郡東軒有角字韻詩，無暇續貂，二十五日途中，用其韻，紀所見>(평창군 동헌에 뿔 각 [角] 자를 각운자로 쓴 시가 있었으나 그 운자를 쫓아서 시를 한 수 지을 겨를이 없었다. 25일에 지나는 도중에 그 운자를 써서 본 바를 적다)

<過昭陽江次韻春日昭陽江行>(소양강을 지나가며—姜淮伯 이지은 <봄날 소양강을 노래함>이라는 시의 각운자를 써서)

<春川向楊口，幾五六十里，皆崖路，傍江兩峽東立，蒼波白石雜以楓林，眞奇景也>(춘천에서 양구로 향하는 곳의 거의 5, 60리 길이 모두 낭떠러지 길인데, 강 양안으로는 골짜기가 어우러져 솟아 있고 푸른 물결에 흰 돌이 단풍 숲과 섞여 있는 것이 실로 희한한 경치였다)

<午憩水仁驛>(낮에 수인역에서 쉬다)

<詠白茅>(華陰의 狼川山에서 흰 띠를 노래하며)

<金剛山>(금강산을 그리워하며)

<鏡浦臺>(경포대를 상상하며)

<晚晴. 躡石門嶺，入楊州路上>(저녁에 날씨가 개다. 석문령을 넘어 양주로 들어오는 길에서)

—이상 《別集》 卷一

위와 같이 그가 강원도에 어사로 나갔을 때 쓴 시는 비교적 여러 수가 남아 있다. 퇴계는 이 때에 본 강원도 여러 곳의 경치를 매우 좋아하여 가는 곳마다 즐겁고, 詩興이 저절로 솟아난다고 하였다.

어지러운 봉우리 하늘로 찌를 듯 솟아 그 기세 뛰어오를 듯하고,
가을 경치 메말라 낭떠러지는 모서리가 다 드러나네.
구름은 동굴이며 골짜기로 돌아들어 그윽하고 깊은데,
무수한 소나무 가래나무는 천 자나 자라 있네.
푸른 내 구불구불 몇 구비나 지났을까?
배 속에서 고개돌리니 푸른 절벽만 바라보이네.
벼슬 그만 두고 당장 돌아갈 수 없겠지만,
이곳이라면 낮은 벼슬이라도 오히려 즐거우리.

亂峯巍天勢騰踔， 秋容瘦盡露崖角。

雲歸洞壑竊而深, 無數松楠老千尺.
 碧溪灣灣渡幾曲, 舟中回頭望青壁.
 不能休官便歸去, 於茲吏隱猶堪樂. —〈平昌郡東軒〉

아래로는 푸른 강 있고 위로는 하늘 있어,
 신비한 골짜기 쪼개어 양 가를 들렀네.
 그곳에 있는 사람 절반은 원숭이가 얼굴 찡그린 듯하고,
 괴석들 어떤 것은 사람이 성내어 주먹 쥔 듯하네.
 종일토록 그 걸 가자니 추위가 거울같은 물에서 쏟아지고,
 한결같은 숲에 끌리어 바라보니 안개 흐드러지게 피어오르네.
 그제야 깨달았네, 시내와 산 서로 도와,
 시 짓는 기개 우뚝 솟고 붓 샘물에 씻은 듯.

下有清江上有天, 擘開神峽兩圍邊.
 居民半似猿噉面, 怪石或如人奮拳.
 盡日傍行寒瀉鏡, 一林延望爛生烟.
 邇來自覺溪山助, 詩骨嶢嶢筆酒泉. —〈春川向楊口〉

마지막 구절은 붓을 샘물에 씻은 듯이 글이 맑아진다는 뜻이다. 퇴계는 이번 길에 금강산을 구경하지 못함을 다음과 같이 아쉬워하고 있다.

큰 뱃부리 동해에 임하여,
 씩씩하게 하늘로 반이나 솟아 있네.
 해와 달 번갈아 서로 가리고 이지러지는데,
 신령스런 선인들 분분히 굴집을 지키네.
 내 가서 그들에게 물어보고 싶지만,
 속세의 벼슬에 얽매여 심히 울적하네.
 한스럽긴 단약 처방 몰라서,
 날아가 숙원 풀 수 없는 것이라네.

巨嶽臨東溟, 雄雄半天出.
 日月互蔽虧, 靈仙紛宅窟.
 我欲往問之, 塵纓甚拘鬱.

恨無丹竈方， 飛去宿願畢。 —〈金剛山〉

《內集》에 나오는 원주 빙허루에서 지은 시는 어릴 때 함께 淸涼山에 가서 공부도 같이 한 적이 있는 옛날 친구 金士文이 지금 이 원주에 와서 敎官 벼슬을 하고 있으나, 만나지 못하여 적어 놓고 간 시요, <酒泉縣酒泉石>은 원주의 속현인 酒泉현에는 ‘酒泉’이라는 바위가 있는데, 그 위에서 술을 마시면 아무리 마셔도 술이 줄지가 않는다는 신기한 전설이 전하고 있어 그 전설을 소재로 읊은 24句로 된 자못 신비한 내용을 담은 시다. <過淸平山有感>은 고려시대의 權臣 李資謙의 아우로서 벼슬을 버리고 淸平山의 普賢院에 들어와서 불도를 닦고 은거하였던 李資玄의 사적을 크게 찬송한 내용이다.

이 《內集》에 있는 시들 중에서 寧越에 있는 錦障江을 끼고 있는 절벽에 세워진 錦江亭에서 지은 시가 좀 특이하다.

두견새 울어 산이 갈라지니 어찌 끝날 해가 있으리오?
 축 땅에도 물 이름이 같은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닐세.
 명멸하는 새벽 처마는 바다에서 떠오르는 햇벌을 맞이하고,
 산뜻한 저녁 기와는 가을 기운을 깨끗하게 쓸어 놓는구나.
 질푸른 소에 바람이 이니 고기들 노는게 비단 같고,
 파아란 절벽에 구름 생기니 학이 담요털을 밟는 듯.
 다시 도인들과 약속하네, 쇠피리를 가지고,
 여기와서 깨게 하기를, 늙은 용의 잠을.

鵲啼山裂豈窮年， 蜀水名同非偶然。
 明滅曉簷迎海旭， 飄蕭晚瓦掃秋烟。
 碧潭風動魚游錦， 青壁雲生鶴踏氈。
 更約道人携鐵笛， 爲來吹破老龍眠。 —〈錦江亭〉

이 시의 首聯에서는 널리 알려진 전설인 주나라 말기에 축나라 임금 자리에서 쫓겨나서 흰백이 두견새로 변하였다는 슬픈 이야기를 이끌어다 이 시를 시작하고 있다. 축나라에도 錦江이라는 강이 있는데, 단종

이 귀양왔다가 죽은 이 영월 땅에도 금강이라는 강이 있다는 것이 정말 우연한 일은 아니다.

두번째 聯은 금강정의 모습을 그린 것이요, 세번째 聯은 錦江亭 앞에 있는 강을 그린 것이다. 마지막 聯에 가서는 다시 首聯에서 제시한 두 견해를 읊은 원한과 관련을 지으면서 이 시가 끝나는 것 같다. 그 안쪽 구절의 “道人”은 아마 이 시의 작자(퇴계자신)를 말할 것이고, “老龍”은 아마 이 땅에 와서 옛날에 죽었던 단종을 암시할 것이다.

퇴계의 《言行錄》을 보면, 퇴계는 평소에 세조가 단종을 쫓아낼 때 있었던 여러 가지 폭행을 함부로 떠드는 것을 경계하였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를 퇴계가 어떤 마음으로 썼는가 하는 것이 퇴계의 후학들에게 자못 논란거리가 되었던 것으로 본다. 퇴계의 四傳弟子인 大山 李象清같은 학자는 “이 시는 특별한 뜻이 없이 적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특별한 감회를 지니고 적었다고 보아도 또한 가능하다”(此詩作平常看亦得, 然作偶然感看亦得)고 하였다.¹⁶⁾

가는 곳마다 ‘觸景生情’—새로운 경치를 보면 새로운 감회를 일으켰던 이 젊은 선비 시인이 어떻게 이곳에 와서도 남다른 감회가 없을 수 있겠는가? 위의 《言行錄》에 나오는 말과 같은 것을 미리 읽지 않고 이 시를 대하게 된다면, 이 시에서 틀림없이 강렬한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VI. 맺는 말

위와 같이 퇴계가 41~2세 때에 의주에 자문점마로 나갔을 때의 시와 경기·충청·강원 삼도에 암행어사로 나갔을 때 지은 시들을 대강 훑어보았다. 머리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때야말로 퇴계로서는 일생 가운데서 가장 넓은 지역을 폭넓게 여행하였던 시기이다.

16) 《要存錄》에서 再引함. 이 <錦江亭>시에 나오는 자세한 故事들에 관하여서는 필자의 이 시 역주(《退溪學報》 第53輯116~8쪽)를 보라.

퇴계는 평생 동안 많은 시를 지었는데, 2,000수가 넘는 그의 작품은 시의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가 시를 쓴 연대로 보아서도 몇 시기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필자가 실제로 번역하여 본 퇴계의 시를 가지고 본다면 20세 이전에 쓴 시 몇 수를 제외한다면, 40세 이전까지 쓴 시들은 경상도 일대와 서울 왕래길에 지은 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시들을 필자는 우선 퇴계의 ‘초기의 기행시’로 묶어 보고 싶다.

그 다음 시기에 등장하는 것이 여기서 다루는 ‘使行詩’이며, 대개 이 시기와의 중복되지만, 이때부터 퇴계는 여러 번 湖堂이나 狎鷗亭에 나가서 賜暇讀書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퇴계는 당시에 가장 장래를 촉망받던 여러 젊은 文臣들과 어울리어 꽤 많은 시를 짓고 또 서로 시로써 酬答하게 된다. 퇴계의 그러한 시들을 ‘湖堂詩’라고 이름지어 하나로 묶어 보고 싶은 것이 필자가 근간 두어 해 사이에 퇴계시를 읽어보고 얻은 소견이다.

이렇게 퇴계의 40대 중반까지의 시를 그의 행적과 시의 소재를 종합하여 ‘少年詩’·‘初期紀行詩’·‘使行詩’·‘湖堂詩’ 등으로 나누어 보았다. 그러면 여기서 다루고 있는 使行詩는 어떤 내용을 갖는 것인가? 위의 본론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요약하여 본다.

의주에 나가서 지은 시는 <義州雜題十二絶>이라는 절구시 12수가 있다. 국경지대의 경관과 거기에 어우러진 분위기, 또 국경 도시의 제도와 역사, 자기가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적은 시들이다.

경기도에 나가서 지은 시는 지금 전하는 것이 2수 정도이다. 9월에 경기도 동북쪽의 수해로 인한 흉작을 살피러 나갔는데, 때는 마침 가을이고, 또 이 지역이 옛날 고려의 도읍 開城과 가까운 곳이라, 백성들의 窮狀, 歷史의 흥쇠 같은 것을 가을 정경과 어울려 슬프게 지은 시들이다.

충청도에 나가서 지은 시는 7수 가량이 전하고 있다. 봄날 꽃은 피어 만발한데, 백성들은 오히려 굶주리고 있는 모습을 마음 아파하는 내용

들이 많다. 또 이른 새벽에 泰安해변을 驛馬를 바꾸어 타고 달리면서, 마침 경상도에 敬差官으로 나간 형님(溫溪)을馬上에서 줄면서 생각한 시도 있다.

강원도로 나가서 지은 시는 모두 10여 편이나 전하고 있다. 42세 때 8월 하순과 9월 초순에 災傷御史가 되어 평창·춘천·원주·영월 등지로 돌아다녔는데, 이때 가을 경치와 어우러진 강원도 여러 곳의 경관에 퇴계는 크게 감탄하고, 시흥이 저절로 우러나온다고 하였다. 지나가는 곳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험준한 계곡을 대하고 詩筆을 곧두세웠다. 또 영월에 가서는 錦江亭에서 端宗의 故事를 哀慕하였으며, 淸平山에 들어가서는 李資賢의 隱逸을 크게 추모하기도 하였다.

머리말에서 이야기하였듯이, 이 논고의 제목을 ‘使行詩’라고 하였으나, 작자가 2년 사이에 봄 가을 네 차례나 使行을 다닐 때에 지은 시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생각하여 본다는 뜻에서 이러한 제목을 잡아보았지, ‘使行詩’라는 독특한 체제를 생각하고서 이러한 제목을 붙인 것은 아니다. 본문에서 보았듯이 이때 적은 시들이 더러 작자의 그때 使命과 관련된 내용을 적은 것도 있으나, 대체로 보아 이 시들은 모두 紀行詩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퇴계는 이후에도 평생 동안 여러 번 서울을 내왕하였고, 또 단양과 풍기와 같이 산수가 流麗한 곳의 수령을 지원하여 가서 山水旅覽을 즐긴 시들을 남기기도 하였다. 43세 이전에 쓴 ‘초기의 기행시’와 더불어 이렇게 일생 동안 여러 시기에 쓴 많은 기행시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退溪詩史의 어떤 발전·변화과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小考에서는 더러 退溪詩의 風格(스타일)에 관하여서도 설명하여 보려고 시 몇 수를 뽑아서 분석을 시도하여 보기도 하였으나, 아직 위에 말한 바와 같은 여러 시기의 시들을 두루 살펴보지도 못하였고, 또 탄 시인들에 대한 이해도 미흡하기 때문에, 아직 이 방면에 대한 특징을 찾아내기에는 힘이 겨움을 느끼고 있다.

다만, 아직도 미답상태에 머물고 있는 退溪詩 연구에서, 퇴계가 좀

특수한 상황에서 쓴 이러한 시들을 좀 상세하게 소개하고, 또 지금까지 알려진 연보에 나오는 사실을 이 시들을 통하여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